

挹翠軒 朴闇의 漢詩 研究

鄭 時 烈*

차례

1. 序論
2. 容齋 李荇과의 交遊詩
3. 醉興과 痛飲의 飲酒詩
4. 詩題의 長形化
5. 詩體別 選好 傾向
6.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挹翠軒 시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詳論의 여지가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연구이다. 그 네 가지는 바로 容齋와의 交遊詩, 醉興과 痛飲의 飲酒詩, 詩題의 長形化, 詩體別 選好 傾向에 대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교유시 가운데서도 작품 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容齋 李荇과의 교유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읍취헌이 용재에게 보낸 교유시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어 있는데 이처럼 인간적이고 진솔한 자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시의 바탕에 용재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읍취헌의 시에 빈번히 등장하는 음주시에 대해서 고찰했다. 읍취헌에게 있어 술은 흥중의 불평을 잠재우고 위로를 안겨주는 知己였으며, 때로는 흥을 일으켜 현실을 잊게 해주는 忘憂物이었다. 그는 또한 음주를 통해 자신이 꿈꾼 이상 세계와 현실 간의 괴리 내지 간극을 채우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아내와의 사별 이

* 영남대 국문과 교수

후에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를 통해 읍취현이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酒鄉마저도 말년에 가서는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제4장에서는 작품 감상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제의 장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제와 시,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 장형화된 시제가 작품의 내용 전달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결과, 장형의 시제로 인해 독자가 시적 내용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읍취현의 시가 絶句에 비해 古詩와 律詩의 비중이 높고 연작시가 많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고시, 절구, 율시에 속하는 작품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주목했다. 이를 통해 읍취현이 산문적 성향의 인물이며, 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읍취현, 박은, 교유, 용재, 이행, 시제, 취흥, 음주, 고시, 절구, 율시, 연산군, 갑자사화

1. 序論

朴闇(1479~1504, 성종 10년~연산군 10년)은 字가 仲說, 號는 挹翠軒이며, 本貫은 慶尙北道 高靈이다. 高靈 龍潭村에서 출생하여 佔畢齋 金宗直(1431~1492)과 점필재의 문인인 崔溥(1454~1504)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한성부 관관인 부친 聘孫과 申叔舟의 손자이자 장인인 申用漑로부터 큰 인격적 감화를 받으며 청년기를 맞이했다. 1496년, 약관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래 8년간 강직함으로 일관된 관료 생활을 하던 중 1504년 甲子士禍 때 梟首되었다. 그와 깊은 교유를 맺었던 동료로는 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止亭 南袞(1471~1527), 容齋 李荇(1478~1534), 寓菴 洪彦忠(1473~1508), 虛庵 鄭希良(1469~미상) 등이 있다.

본고는 읍취헌 박은의 시에 나타난 네 분야, 곧 용재와의 交遊詩, 醉興과 痛飲의 飲酒詩, 詩題의 長形化, 詩體別 選好 傾向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읍취헌의 시는 현재 賦와 聯句를 제외하고, 총 141제 229수가 전한다.¹⁾ 용재 이행이 쓴 『挹翠軒遺稿序』를 보면 읍취헌이 갑자사화 때 화를 당한 뒤 그의 모든 유고가 산실되어 찢막한 서찰조차도 남은 게 없었기에 결국 교유하던 이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시문을 모아서 문집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나와 있다. 이처럼 현전하는 읍취헌의 시는 생전에 지었던 詩稿의 일부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들 텍스트를 통해 읍취헌 시의 전반적 경향을 단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읍취헌의 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1981년 첫 논문²⁾이 나온 이래 최근 2005년까지 일반 연구 논문과 학위 논문이 약 25편 가량 발표되었다. 물론 그중에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거나 색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 반면, 앞서의 논의를 되밟는 수준의 것도 있다. 개략적인 연구사를 정리해보면, 홍우흠이 읍취헌 시의 내용적·외형적 특색에 대해 다룬 것을 필두로 해서 홍순석이 읍취헌의 詩와 文을 번역하고,³⁾ 이에 대해 수편의 논문을 썼다. 그 후 읍취헌의 생애, 작품 풍격, 시세계 등을 연구한 논문들이 이어졌다.

중요한 성과들이 여러 편 있지만 그중에서도 읍취헌을 海東江西詩派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그의 시를 고찰한 이종묵의 논의⁴⁾와 읍취헌의 시에 구사된 拗體에 대해 검토한 홍순석의 논의⁵⁾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읍취헌 연구의 先

1) 본고는 1795년(정조 19년) 정조가 간행한 四刊本(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민족문화추진회의 영인표점본을 텍스트로 했다. 작품은 번역은 홍순석의 『박은 시문학 연구-자료편』(한국문화사, 2004)와 『국역 읍취헌유고』(이상하 譯, 민족문화추진회, 2006)를 주로 참고했다.

2) 홍우흠, 『박은 한시의 특색』, 『한국어문논집』 제1집, 한사대, 1981.

3) 홍순석, 『朴闇의 生涯와 詩』, 일지사, 1986.

4)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鞭이라 할 수 있는 홍우흙의 논문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컸던 만큼 이후에 나온 여러 논문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본고 역시 여기에 자극받은 바가 크다. 이처럼 읍취헌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 왔기에 필자는 생산적 논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존 논의를 모두 확보하여 읽은 후 논의가 미진하거나 詳論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본고를 작성했다.

읍취헌의 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서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다음 네 가지에 주목했다. 이들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본문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서론에서는 필자가 어떤 이유로 이 항목들을 논의 대상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첫째, 交遊詩에 관한 것이다. 읍취헌의 시는 교유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중에서도 용재 이행과의 교유시가 양적인 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에 본고에서 논의해 보고자 했다. 두 사람 간의 돈독했던 情誼는 여러 편의 詩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⁶⁾ 특히 용재에 대한 읍취헌의 믿음이 남달랐음에 주목한다면 본고의 논의를 통해 재차 확인하거나 새롭게 조명할 만한 사실들이 분명 있으리라 본다.

둘째, 醉興과 痛飲을 소재로 한 飲酒詩에 대한 것이다. 읍취헌의 시에는 술이 참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술은 분명 그의 시를 특징짓는 중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시 속에 음주와 관

5) 홍순석, 「박은 시의 수사기교 연구(1)－拗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4집, 한국한문학회, 2004.

6) 「택지가 전에 唐牋을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시를 지으면 일일이 부쳐 주게.” 하였는데…」(擇之前以唐牋遺我曰, 得詩——見寄…), 「취중에 시를 지어 한때의 고생스런 말을 기록하니, 그대가 아니면 차마 보일 수 없다」(…醉中爲詩, 用記一時契闊之語, 非君不堪相示也), 「…택지는 지금 나의 심정을 알 것으로 생각되기에 써서 보여 준다」(…想擇之知我此時之情, 故書以相示)

런된 다양한 상황, 주변 인물, 자신의 心思, 신변잡기적 서술 등이 제시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음주시를 분석한다면 읍취현에게 있어 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또 시인으로서, 신진 관료로서,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살다간 한 인간으로서의 그가 어떤 내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일조가 되리라 본다.

셋째, 시의 제목이 유난히 길어지는 詩題의 長刑化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여타 문집에서도 장형의 시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挹翠軒遺稿』의 경우 해당 작품 수나 시제의 字數면에서 확실히 주목을 끈다. 일찍이 홍우흠은 여기에 대해 '詩題의 解說性'이라는 제목을 달아 논한 바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가 밝힌 시제의 해설적 기능은 분명 설득력을 지닌 타당한 것이지만 시 작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시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시제와 시, 둘을 상호 대비함으로써 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논의들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詩體別 選好 傾向에 대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古詩와 律詩, 그리고 連作시에 집중된 그의 詩作 경향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 각 시체별 작품의 분포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읍취현은 단형의 절구가 아닌 고시와 율시를 선호했다. 근체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식이 자유로운 고시나 형식은 엄정하지만 절구에 비해 長刑인 율시형의 작품이 많다. 특히, 율시형을 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회포를 서술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連作시형을 즐겨 사용했다. 이러한 시작 경향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 밝힌 결론들은 대체로 공감어 가는 타당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 작품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채 시 형식만을 두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작품을 검토한 후 각 시체별 특성에 대해 결론 내리고

자 한다.

그럼 이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 읍취헌의 시를 조 명해 보도록 하겠다.

2. 容齋 李荇과의 交遊詩

『읍취헌유고』에 실린 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용재 이행, 지정 남곤, 우암 홍언충, 허암 정희량 등 몇몇 벗들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대 부분의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시를 흔히 交遊詩라고 명명했으며, 때로 交分詩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사전을 보면, ‘交遊’란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것을, ‘交分’이란 서로 사귀는 정을 의미한다. 개성의 천마산과 서울 잠두봉 아래에서의 遊樂을 담은 『天磨蠶頭錄』에서처럼 벗과 함께 노니 는 즐거움을 읊은 작품들은 물론이요, 직접 만나서 노닌 것은 아니지만 벗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지은 다수의 시편들을 보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 간의 우 정과 신뢰가 자리하고 있기에 ‘交遊’보다는 ‘交分’이란 말이 보다 적합한 용어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분’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靜態的인 용어보다는 ‘교유’ 라는 익숙하고 相互交流的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때의 ‘교유’는 現實的·空間的·可視的 의미 외에 精神的·情緒的 의미까지 포함한, 사전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읍취헌의 시 가운데 교유시의 비중이 큰 데 대해 그가 지닌 세계관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友人의 세계를 떠나 대자연을 소요하며, 순수하고 객관 적인 눈으로 우주를 관찰하고 인생을 사고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인 데⁷⁾ 이는 읍취헌의 詩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다소 지나친 비판으로 여겨

진다.

본고에서는 교유시 중에서도 특히 용재 이행과 관련된 시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현전하는 읍취현의 교유시는 총 61題가량 되는데, 그중 용재와의 교유시는 약 46題로서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시적 대상에 있어서의 이러한 편중성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용재가 읍취현의 시를 평소 많이 받아 두었고, 또 문집 편찬 시 친구들에게 산재되어 있던 유고를 그가 정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 중에는 읍취현과 용재의 친밀한 교류를 보여주는 시, 즉 용재와의 교유시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용재와의 교유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 속에 형상화된 시인의 모습과 어조에 주목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에게 있어 용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논의 대상이 되는 교유시 중에는 和答詩⁸⁾도 포함되어 있다. 화답시는 의사 전달면에서 비록 직접적인 대화에 비해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시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문학적 상상력이 작용하여 작품에 무한한 감흥을 담아내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화답시 교유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읍취현이 용재에게 화답하거나 화답을 청한 여러 시편들 속에는 시인의 은근하면서도 절실한 속정이 담겨 있으리라

7) 홍우흠, 『박은 한시의 특색』, 『한국어문논집』 제1집, 한사대, 1981, 185쪽.

8) 이러한 화답시, 즉 和詩에는 보내준 내용에 대해 답하는 '和意詩'와 운자에 주안점을 두어 답하는 '和韻詩'가 있다. 『古文眞寶』(前集)의 『和徐都曹』를 보면, 원래는 회의시만 존재했으나 晩唐에 이르러 비로소 화운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용 중심에서 시작한 화답시가 점차 형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읍취현이 절친한 벗인 용재 이행에게만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그 진심을 토로했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고의 시도를 통해 시인의 眞情에 한 걸음 더 생생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제시된 시 『쌍죽분을 용재에게 보내다』⁹⁾는 五律 형식의 작품으로 벗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我有雙竿碧	내게 두 그루 푸른 대가 있어,
聊貽御史家	애오라지 어사 댁에 드리노라.
託根從淺土	뿌리 내린 곳은 얇은 흙이지만,
不語謝春華	말 없는 품이 봄 영화 사양한다네.
竝立心無附	나란히 서서 빌붙는 마음 없으나,
干雲事尙賒	구름을 찌를 일은 외려 원대하다네.
煩公更扶護	번거롭더라도 공께서 다시금 잘 보살피서
莫使雪霜加	눈서리 맞지 않도록 해 주시오.

이 시에서 두 그루의 푸른 대나무는 읍취현과 용재, 두 사람을 상징하는 대유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수련에 등장한, 읍취현이 용재에게 보낸 쌍죽분은 두 사람 간의 우정의 징표라 할 수 있다. 함련에서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대가 비록 얇은 화분에 자리하고 있지만 영화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歲寒孤節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경련에는 벗과의 교제에 대한 ‘和而不同’¹⁰⁾의 友道觀 및 앞날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란히 서서 뜻을 같이 하되 상대에게 기대려 하거나 딴 뜻을 가지고 친밀히 굴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하늘을 향해

9) 朴聞, 『挹翠軒遺稿』 卷三, 『以雙竹盆寄容齋』.

10) 『論語』 『子路』篇에 나오는 말이다. 남에게 어그러진 마음을 갖지 않고 조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아부하지 않는 것이다.

쭈뼛 뺨어 나가 해를 가리는 구름을 뚫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미련은 아직은 어리기에 보호가 필요한 쌍죽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신진 관료로서 힘이 미약한 그들 두 사람이 강성한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明哲保身해야 함을 당부하는 傳言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시는 쌍죽분을 매개로 해서 친구 용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다음 시는 「병든 눈으로 벗의 시에 차운하여 택지에게 보내 화답을 구하다」¹¹⁾라는 제목의 七律 작품으로서 시 전체에 시인의 약한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

閉眼深居不啓關	눈 감고 깊이 들어앉은 채 문 열지 않으니,
翠軒閑却半簾山	취헌은 조용하고 반쯤 걷은 주렴으로 산이 보이네.
孤如籠鳥長思侶	외롭기는 새장의 새가 늘 짝을 생각하는 것 같고,
癡似秋蠅更怯寒	어리석기는 가을 파리가 추위를 겁내는 것 같구나.
豈有顛狂舊時興	어찌 미친 듯하던 옛 흥취가 있으리오.
漸成枯槁老容顏	점점 앙상한 늙은 얼굴이 되어가는구나.
百年身世誰非寓	백 년의 세상살이 누군들 나그네 아니라.
出處悠悠涕自漣	출처는 아득하여 눈물이 절로 흐르네.

일반적으로 세상에 처신함에 있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人之常情이겠지만 서로 뜻을 같이하는 사이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본모습과 속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법이니 바로 위의 시가 그렇다. 이 시에서 시인 읍취헌의 형상은 그야말로 가냘프기 짝이 없다. 마치 세상과 절연한 듯 보이는 수련의 시상에 이어, 함련에서는 ‘조롱의 새’와 ‘가을 파리’라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게다가 ‘孤’·‘癡’ 등의 시어를 각 구의 맨 앞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외로움과 미련함을 스스로 강

11) 朴闇, 『挹翠軒遺稿』 卷三, 「病眼, 次友人韻, 簡擇之求和」.

조하며 노출시켰다.

그 다음 경련을 보면 시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生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음이 드러난다. 예전의 패기를 잃었음은 물론이요, 용모조차 20대 청년의 활기를 잃은 채 물기 없이 바싹 마른 老顏이 되었음을 자탄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미련에 오면 시인의 어조는 이제 처량하기조차 하다. 젊은이다운 씩씩함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나그네 의식은 흐르는 눈물로 시를 마감할 만큼 비감한 정조를 자아낸다. 이처럼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부정적 감정을 거침없이 노출할 수 있을 만큼 읍취헌에게 있어 용재는 각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읍취헌이 용재에게 보낸 시 가운데는 孤獨·不平·興趣와 豪氣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색채의 작품이 있다. 다음 시들은 용재에게 화답하거나 화답을 청하며 지은 작품들로서 시인의 고독한 심사를 담고 있다.

- | | |
|-----------------------------------------------------------------------|--------------------------------------------------------------------------------------------------------------------|
| ① 窮歲門庭渾似掃
故人車馬絕相求
……
自分疏慵須落魄
爲誰牽挽且淹留 ¹²⁾
…… | 한 해가 다 가도록 뜬 온통 비로 쓴 듯하고,
친구의 거마는 찾아오질 않네.
……
내 분수 게으르고 못났으니 초라한 신세 당연하네만
누가 만류하기에 구차히 오래 머무르는가.
…… |
| ② 自笑殘生知我寡
容齋只有歲寒交
一官汨沒聊同趣
二老歸來許共巢 ¹³⁾
…… | 스스로 웃노라. 쇠잔한 생애에 나를 알아주는 이 적
은데,
다만 용재가 세한의 벗이구나.
한 관직에 골몰하며 애오라지 취향이 같아서
둘이서 늙으면 돌아가 함께 살자 했네.
…… |

12) 朴間, 『挹翠軒遺稿』 卷三, 『爾來絕不作文字, 案上有擇之詩, 時時諷誦之餘, 有感於心, 和成三首』 第二首.

13) 朴間, 『挹翠軒遺稿』 卷三, 위의 시, 第三首.

- | | |
|---------------------------------------------------------------------------------------------------------------------|-------------------------------------------------------------------------------------------------------------------------------------------------------------------------------------------------------------------------|
| ③ 杜子老羈旅
糊口彌宇宙
平生飢寒迫
未見溝壑救
……
故人尙不來
信覺吾居陋
……
不憚窮巷泥
載酒或相就
庶可解幽憂
餘子安足話 ¹⁴⁾ | 두보가 나그네로 늙으며,
끼니를 잇느라 천하를 헤매었지.
일생 굶주림과 추위에 꺾박 받았건만
구렁에서 구해줄 이 만나지 못했지.
……
벗조차 오히려 오지 않으니
참으로 내 집 누추함 알겠도다.
……
누추한 시골의 진흙탕 꺼리지 않고
술 들고 혹 찾아 준다면
깊은 시름 풀릴 수 있으리니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탓할 것 있겠는가. |
|---------------------------------------------------------------------------------------------------------------------|-------------------------------------------------------------------------------------------------------------------------------------------------------------------------------------------------------------------------|

위에 제시된 시들은 모두 외로움을 토로한 작품들이다. ①에서는 방문객 하나 없는 쓸쓸한 歲暮의 정경을 읊었다. 자신의 분수를 알기에 불우한 처지에 대한 원망이 없는 듯하지만 그 어조가 결코 편하지만은 않다. 읊취현의 시를 보면 이처럼 세상에 대한 소외감 내지 隔絶感이 표출된 시구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한 해가 저무는 눈길엔 사람의 발자취 없고, 온종일 바람에 사립문만 닫혔다 열렸다.”¹⁵⁾와 같은 시구 역시 인적 끊긴 눈길의 을씨년스런 정경을 통해 자신의 고독한 심사를 보여준 예가 된다.

②에서 시인은 자신을 외면하는 세상 인심을 원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松柏’의 절조¹⁶⁾를 지닌 친구가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同’·‘共’과 같은 시어에서 읊취현이 자신과 용재의 일체감을 표현하고자 애쓴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그만큼 외로웠고 세상과의 끈을 놓치고 싶어

14) 朴闇, 『挹翠軒遺稿』 卷一, 「霖雨十日, 門無來客, 悄悄有感於懷. 取舊雨來今雨不來爲韻, 投擲之乞和示」 第一首.

15) 窮年雪逕無蹤跡, 終日風扉自闔開(『挹翠軒遺稿』 卷三, 「亂簡中, 偶見翠軒餞李永元聯句一篇, 讀之深起感焉…」).

16) 『論語』 「子罕」篇,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심정은 勝景을 접한 후 용재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지은 시구인 “진정한 벗 지금 세상에 참으로 몇 안 되니, 이 몸의 세상살이 더욱 굳더더기 같구나.”¹⁷⁾라는 탄식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③은 杜甫의 시 『秋述』에 나오는 “옛날에는 비가 와도 오더니 지금은 비가 오면 오지 않네.”(舊雨來今雨不來)라는 구절을 운으로 삼은 오언고시이다. 두보의 삶을 요약한 처음 네 구는 다름 아닌 읍취헌 자신의 외로운 인생살이에 대해 말한 것이기도 하다. 열흘 동안 계속된 장맛비에 찾아오기를 잊은 듯한 용재에 대한 원망이 어리 시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시구인 “다른 사람들 이야 어찌 타할 것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용재의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고, 동시에 다른 세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시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읍취헌이 용재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원했기에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그에게 생생히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다음 시들은 용재와의 교유시 중에서도 세상사에 대한 불평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① ……

萬事維鳩渾得拙
暮年病驥不能驕

……

襟抱若爲寬使好

모든 일이 비둘기 같아 도무지 서툴기만 하고,¹⁸⁾

늘그막에 병든 천리마처럼 힘차질 못하네.

이내 흉금을 어떻게 하면 후련히 풀 수 있을꼬.

17) 知己卽今眞不數, 此身在世轉如疢(『挹翠軒遺稿』 卷三, 『此行風景甚奇, 恨不與故人同樂…』).

18) 『詩經』, 『召南』, 『鵲巢』에 “까치가 둥지를 둠에 비둘기가 살도다.”(維鵲有巢, 維鳩居之)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비둘기는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새로 등장한다(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읍취헌유고』, 161쪽 각주 참조).

一軒風物謾蕭蕭¹⁹⁾ 난간의 풍광은 아득히 쓸쓸하구나.

② ……

愁懷無處寫	시름겨운 회포 풀 곳 없어
酒酸與君同	술잔을 그대와 함께 한다네.
數過信知己	자주 찾아주니 진실로 지기로다.
多言從此翁 ²⁰⁾	말이 많아지는 건 자네가 있어서지.

……

용재에게 보낸 위의 시들은 모두 투정과 탄식의 어조를 띠고 있다. ①은 용재에게 화답한 시로서 자신의 졸렬한 처신과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에 대해 자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난간에서 바라본 경치가 살풍경하다는 표현에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려는 본인의 뜻과는 달리 계속해서 심사가 뒤틀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다른 시에서 “만사를 하늘에 묻다 도리어 스스로 웃나니, 이 마음은 세상과 서로 맞지 않구나.”²¹⁾라는 말로 여의치 못한 세상사에 대한 허탈함을 담아내기도 했다.

②에서는 정신적으로 용재에게 기댄 읍취헌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된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였기에 “외로이 등불 대하고 비감에 젖지 말라. 예로부터 인간사란 어그러짐 많았다네.”²²⁾라는 말로 자신의 불우에 대해 비감 어린 위로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읍취헌에게는 불만 가득한 자신의 토로를 들어줄 누군가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다. “취해 잠드니 깨우지 못하게 하고서, 한밤중 그대는 돌아갔

19) 『挹翠軒遺稿』 卷三, 「和擇之」.

20) 『挹翠軒遺稿』 卷三, 「雨中被酒, 懷發爲詞, 聊復書呈擇之」.

21) 萬事問天還自笑, 一心與世不相謀(『挹翠軒遺稿』 卷三, 「十月十七日夜, 余過寓庵劇飲, 聯詩四篇…」 第三首).

22) 莫對孤燈悲感劇, 從前人事自多乖(위의 시, 第二首).

네.”²³⁾라는 시구에서처럼 혼자서 실컷 떠들다 잠들어 버려도 무방할 정도의 무람없는 대상을 원했던 것이다. 위의 시편들에서는 읍취현이 그러한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용재 이행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 시들은 용재와의 교유시 가운데 興趣 및 豪氣와 관련된 작품들이다.

① ……

跨馬從知興不盡	말을 타고 달리니 흥이 끝없는 줄 알겠고,
見山聊復座頻遷	산을 보고자 다시 자리를 자주 옮기네.
此懷耿耿君應識	이 생각 또렷하니 그대는 응당 알리.
勝處時時我欲顛 ²⁴⁾	경치 좋은 곳에선 때때로 나는 미칠 듯하다네.
……	

② ……

偶作三人對	우연히 우리 세 사람 마주 대하니,
誰言萬事忙	누가 세상일 바쁘다 말하라
解衣唯取適	옷 풀어 헤친 채 오로지 즐기려고
把酒欲成狂 ²⁵⁾	술잔 잡고서 미치고자 했지.
……	

이들 시편은 모두 흥취 내지 호기와 관련되어 있다. ①에서는 「봄잠을 자고 나니 호탕한 흥이 일기에 …… 용재에게 바쳐 흥이 나게 한다」는 제목처럼 봄 한때의 호탕한 풍치를 보여 준다. 특히 ‘君應識’이라는 외침이 눈길을 끄는데, 읍취현의 시에서는 이처럼 용재만이 자기 심사를 알아준다고 읊은 부분이 여러 곳 눈에 띈다. 우울한 심사를 읊을 때는 한없이 침잠한 채 은거

23) 醉眠禁不覺，半夜有歸鴻(『挹翠軒遺稿』卷三，「雨中被酒，懷發爲詞，聊復書呈擇之」).
 24) 『挹翠軒遺稿』卷三，「翠軒春睡之餘，浩浩乎有興，披詠前詩，尤不能自禁。明日之約，可能諧否。聊用原韻，呈容齋發興」.
 25) 『挹翠軒遺稿』卷三，「六月十八夜，與擇之善之宿興天寺。擇之入夜乃赴，蓋以官事自漢江來也」第一首.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읍취현이지만, 반대로 흥이 발하면 “한가한 이 사람 객이 싫고 또 외출도 귀찮지만, 흥이 나면 때때로 혼자 그대를 찾노라.”²⁶⁾라는 식의 흥취 가득한 시구를 써내기도 했다.

②는 읍취현과 용재를 비롯한 세 벗이 흥천사에서 유숙하며 지은 호기 어린 시의 일부이다. 괴이하게 보는 승려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한껏 취하고자 하는 시인의 어조에서 읍취현 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청년다운 패기와 기세가 느껴진다.

이상의 여러 시편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읍취현이 용재에게 보낸 교유시에는 자신의 약한 모습과 고독에 대한 토로, 세상사에 대한 투정과 탄식, 흥취와 호기라는 여러 감정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간적이고 진솔한 자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들 시의 바탕에 친구인 용재 이행에 대한 신뢰²⁷⁾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끝으로 읍취현과 용재의 관계를 보여주는 후대의 기록 한 편을 살펴 보겠다. 申光漢(1484~1555)이 쓴 『遊天磨蠶頭二錄序』는 읍취현 박은과 용재 이행, 지정 남곤, 이들 세 사람의 교유에 대한 글로서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기에 손색이 없다.

일찍이 듣기로는 군자는 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고 했다. 벗으로써 인을 보낸다고 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문으로써 벗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이 두 글에서 보았다. 박은은 남곤, 이행과 벗이니, 어찌 다만 마음에 흥허물 없이 서로 보고 서로 웃을 뿐이었겠는가. 기쁘게 글을 지으려 모였고, 성대히 글을 지어 펼쳤다. 평소 아무 일 없을 적에는 하루라도 모이지 않는 날이

26) 閒人厭客還慵出，乘興時時獨問君(『挹翠軒遺稿』卷三，「十月十七日夜，余過寓庵劇戲…」第一首)。

27) 안병학은 『이행의 시세계에 있어서의 현실긍정과 풍류』(『태동고전연구』 제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7)에서 용재는 현실 세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수용했고,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천의 공평함을 믿는 인물이었다고 논했다. 용재가 지닌 이러한 현실 긍정적 세계관에 읍취현의 마음이 끌렸을 수 있다.

없었고, 번갈아 노래 부르고 번갈아 잔 돌릴 적에는 한 번 모이면 글을 짓지 않는 날이 없었다.²⁸⁾

이 글은 개성의 천마산과 서울 잠두봉 아래에서의 行樂을 시로 읊어낸 『天磨蠶頭錄』의 서문 중 일부이다. 여기에는 好文을 매개로 한 읍취헌, 용재, 지정, 세 사람의 우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정치적 운명에 있어서 읍취헌만이 다른 두 사람과 달리 早落과 夭折의 불운을 겪었지만 詩文을 향유하는 일에서 만큼은 세 사람이 뜻을 같이했고, 그 즐거움을 함께했던 사이였다. 『論語』 「顏淵」篇에 언급된 '以文會友'라는 曾子の 말씀처럼 읍취헌의 교유 관계는 확실히 글을 통해 확대되고 깊어진 측면이 강하다. 실로 '以文會友'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

3. 醉興과 痛飲의 飲酒詩

읍취헌의 시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술(酒)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벗과의 痛飲이나 飲酒 후의 醉興을 소재로 한 이들 작품에는 시인의 인생 노정과 심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술이 등장하는 음주시를 대상으로 시에 제시된 다양한 음주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읍취헌에게 있어 술이란 무엇이었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산조라는 암울한 시기를 살다간 한 신진 관료의

28) 嘗聞古之君子有以文會友，以友輔仁者。以友輔仁者尙矣，以文會友者，余於斯二錄見之矣。朴公仲說之與南相士華，李相擇之友也，豈但莫逆於心相視相笑而已哉。歡然有文而聚之，蔚然有作而張之。其平居無事，無一日之無會，更唱迭酬，無一會之無作(申光漢，『企齋文集』卷一，「遊天磨蠶頭二錄序」)。

고뇌에 찬 인생 역정의 일면을 살필 수 있으리라 본다.

음취헌이 취중에 용재를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시를 보면, 妹夫 安處誠 (1477~1571)와 술의 害惡에 대해 자주 논쟁했음을 보여주는 시구가 나온다. “나는 어릴 때 술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라 했지. 때 번 安誠之와 더불어 얘기하며, 술이 좋다 나쁘다 다투었지”²⁹⁾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이 대목을 통해 비록 음취헌에게는 많은 음주시가 있지만 그가 본래부터 술을 즐긴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에는 원래 술을 멀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심해지자 취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주정을 해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술에 침잠하기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고백 속에는 零落해가는 그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취헌에게 있어 음주는 자신의 불우에 대한 대처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거둬드는 우환 속에서 落拓해가는 인생의 무게를 덜고자 택한 수단이 바로 술이었던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시편들은 술로써의 解憂를 보여주고 있다.

- | | |
|------------------------------------------------------------|----------------------------------------------------------------------------------------|
| ① 早歲欲止酒
中年喜把盃
此物有何好
端爲胸崔嵬 ³⁰⁾
..... | 젊을 때에는 술을 끊고자 했고,
중년에는 술잔 잡길 좋아했어라.
술이란 물건 대체 무엇이 좋은고,
가슴 속 울울한 응어리 씻을 수 있다네. |
| ② | 취한 채 이불 잡고 다시 편안히 누우니 |

29) 我少不喜酒，謂此乃狂藥，每與安誠之，爭以酒美惡(『挹翠軒遺稿』卷一，「秋來，與擇之相見益不數，尙能與村巷故人爲菊花飲…」).

30) 『挹翠軒遺稿』卷一，「霖雨十日，門無來客 …」第7首.

未覺胸中有不平³¹⁾ 가슴 속 불평도 어느덧 사라졌어라.

①에 나타난 자문자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읍취헌에게 있어 술이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26년의 생애가 전부인 그에게 ‘早歲’니 ‘中年’이니 하는 표현이 그리 공감미 가지는 않지만 세상을 뜨기 전 몇 년의 기간이 그에게는 제일 힘겨운 시절이었음이 분명하다. ②에서는 취기를 빌려야만 잠들 수 있는 현실을 말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컸기에 빗속에 술이 취한 채 지었다는 어느 시편에서는 친구 용재를 향해 “근심스런 회포 풀 곳 없으니, 술잔을 그대와 함께 나누다네.”³²⁾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읍취헌의 이러한 모습은 시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밤이 되었는데 한잠도 자지 못한 채 한평생의 일을 생각하니 온갖 상념이 또러이 떠오르네. 또 짐작건대 그대의 진퇴도 실로 어려울 터라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 이에 술 한 잔을 마셔 취기가 오르니 예전에 詩韻이 기억나기에 문득 짧은 律詩 한 수를 지어 여명 무렵에 택지 죽하에게 보내 드리오.³³⁾

이 시제를 보고 당시 읍취헌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온갖 상념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끝내 술기운을 빌려 시를 짓고, 동이 틀 무렵까지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다. 술과 시, 그리고 불면에 있어서 동지 의식을 느낄 벗마저 없었다면 그의 생애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읍취헌의 음주시가 무거운 분위기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술기운에 豪氣를 부리고 遊樂을 즐기는 모습도 보인다.

31) 『挹翠軒遺稿』卷三, 「夜臥, 誦曾來鳴字韻詩有感…」.

32) 愁懷無處寫, 酒醜與君同(『挹翠軒遺稿』卷三, 「雨中被酒, 懷發爲詞, 聊復書呈擇之」).

33) 夜來無一寐, 自念百年事, 懷抱耿耿. 又料君進退實難, 想同余不眠. 取酒一酌醺然, 因記舊韻, 輒成短律, 遲明投擇之足下(『挹翠軒遺稿』卷三).

.....

初筵我亦頗羞澁
 舉盃未免煩屢訴
 醉後推擠且不去
 觴遲往往遭嗔怒
 我本顛狂乃如此
 君輩風流足分付
 要須吸盡瓮中綠
 瓮中雖盡有村醪³⁴⁾

.....

처음 술자리에선 나 또한 몹시 어색하고 수줍었기에
 술잔 자주 권한다고 누차 호소도 했다네.
 그러나 취한 뒤엔 떠밀어도 아니 가고
 술잔 더디게 온다고 때때로 화내기도 했지.
 나야 본래 광기 부림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의 풍류를 넉넉히 나누어 주시게.
 아무쪼록 항아리에 술 꼭 다 들이킬지니
 항아리가 비어도 시골 술 살 수 있다네.

이 시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 밤, 용재를 비롯한 몇몇 벗들과 통음하는 장면인데 취흥이 더해 가는 광경을 묘사한 부분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처음 술자리가 시작되자 잔이 너무 빨리 돈다며 머뭇거리던 시인도 취기가 한껏 오르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잊은 채 술잔을 재촉하는 취객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술은 더 사면되니 얼마든지 마시라는 호기로운 소리까지 거침없이 내뱉는다.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친구 남곤의 집 앞을 흐르는 萬里瀨에서 지은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술 취해 바위틈의 눈을 씹으며, 광기 부리다 두건도 빠뜨렸다네.”³⁵⁾라는 표현이 실로 절묘하다.

읍취헌이 지정 남곤과 용재 이행에게 준 어느 시의 自註를 보면, “매번 택지와 함께 만리뢰로 찾아가서 술을 달라고 하여 실컷 마신 뒤 담소하며 즐기느라 손님과 주인의 분별도 몰랐다.”³⁶⁾라는 언급이 나온다. 집주인인 남곤은 관가의 일에 매여 함께 하지 못하고 객들만 찾아가서 번거로움을 끼치는 상황에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유쾌하게 즐기는 그 정취가 자못 호방하다.

34) 『挹翠軒遺稿』卷二, 「七月廿五, 風雨甚急, 擇之折簡報云…」.

35) 醉嚼巖間雪, 狂遺頭上巾(『挹翠軒遺稿』卷三, 「萬里瀨」第二首).

36) 每與擇之扣萬里瀨, 呼酒痛飲, 談笑爲樂, 不知更有賓主(「正月十九日, 與擇之飲止亭…」의 自註).

하지만 이러한 유락의 기쁨과 관련된 음주시는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음주시의 정조 역시 우울함이 주를 이룬다. 다음 시편들은 읍취현이 술을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역시 그 시적 분위기가 밝지 못하다.

- | | |
|---------------------------------------------------------|--------------------------------------------------------------------------------------|
| ① 痛飲夜張燭
苦吟曉未已
平生非二物
未知吾所止 ³⁷⁾
…… | 밤에 촛불을 밝혀 실컷 마시며
새벽까지 쉬지 않고 시를 읊조리네.
평생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내 마음 둘 곳을 알지 못했으리. |
| ② 我本愛酒人
著處醉如泥
……
人真何太隘
醉鄉眞可棲 ³⁸⁾ | 나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는 곳마다 흠뻑 취한다네.
……
인간 세상은 어찌 이리도 비좁은지
취향만이 진정 살 만하여라. |

①은 오언고시 세 수 연작 가운데 첫째 수이다. 그 둘째 수에서 “평소에 전원에 돌아가리라 약속했건만, 갑자기 금슬의 연주를 멈추고 말았네.”³⁹⁾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때 그의 부인 고령 신씨가 이미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 아이를 출산한 뒤 25세의 나이에 아내가 요절한 사건은 읍취현에게 있어 환로에서의 위기에 버금가는 크나큰 內憂였음이 분명하다. 아내마저 떠난 터에 시와 술이 없었다면 달리 마음 붙일 곳이 없었으리라는 그의 탄식은 처량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②는 홍양포에서 뱃놀이를 한 후에 쓴 작품이다. 여기서 애주가라 자칭하며 어디서건 취한다는 그의 말은 醉鄉

37) 『挹翠軒遺稿』 卷一, 「九月生明之夜。與誠之飲翠軒 …」 第一首.
 38) 『挹翠軒遺稿』 卷一, 「二十七日, 泛興陽浦, 晚登亭縱飲」 第二首.
 39) 平生南畝約, 遽已罷瑟琴(『挹翠軒遺稿』 卷一, 「九月生明之夜。與誠之飲翠軒 …」 第二首).

만이 자기 살 곳이라는 끝부분의 토로와 맞물려 현실에 대한 절망과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이상에서 읍취헌의 음주시에 보이는 몇몇 정황을 살펴봤는데 그의 음주시에서 주의를 끄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내의 존재이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기분을 살펴서 술상을 마련하는 사려 깊은 여성이었으며,⁴⁰⁾ 읍취헌 역시 그런 아내에 대한 다정함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고시의 詩題 가운데서도 “마음이 답답하여 울적하던 차에 아내가 뜻밖에 술상을 차려 왔다. 날도 이미 저물었기에 등잔불을 돋우고 홀로 술을 마시노라니 술병이 비어 버렸다.”⁴¹⁾는 구절이 등장한다. 눈보라 치던 어느 날 밤 문을 닫은 채 홀로 산음의 흥취에 심란해 하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럼 부부 간의 다정함이 묻어나는 시구를 살펴보겠다.

.....

老婢撥灰明兀兀

늙은 여종이 재를 헤치니 불빛 드러나고

孺人挹酒勸卿卿⁴²⁾

아내는 술잔 잡고서 여보! 여보! 하며 권하누나.

.....

대부분의 음주시가 벗들과 수작할 때의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술잔을 든 아내가 “여보! 여보!”⁴³⁾ 하며 술을 권하는 모습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읍취헌 역시 ‘卿卿’이라는 두 시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을 것이다. 다음 시 역시 읍취헌의 애뜻한 부부애를 보여준다.

40) 『挹翠軒遺稿』 卷四, 『亡室高靈申氏行狀』 참조.

41) 悵悵不樂, 家人忽謀酒來. 日已昏矣, 挑燈獨酌, 瓶空乃已(『挹翠軒遺稿』 卷一).

42) 『挹翠軒遺稿』 卷三, 『夜臥, 誦曾來鳴字韻詩有感...』.

43)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칭호다. 풀나라 王安豐의 아내가 남편을 卿이라고 불렀다(홍순석, 『박은 시문학 연구-자료편』, 248~249쪽 각주 참조).

10월 4일에 택지와 술을 가지고 인로를 찾아가기로 약속했는데 택지가 홀연 병이 났다고 알려와 약속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홀로 앉았노라니 마음에 감회가 일었는데 …(중략)… 아내가 문득 부르며 작은 쇠술을 가져와 술을 데워서 잔에 붓고 또 권하였다. 이에 몇 잔인지 헤아리지도 않고 마셔 취기가 자못 올랐는데 밤은 벌써 이경이 되었다.⁴⁴⁾

……

酒許山妻淺淺斟
使有兩螯吾易足

술이야 수수한 아내에게 조금씩 따르게 하지.
두 마리 게⁴⁵⁾만 있으면 나는 쉽게 만족한다네.

……

친구와의 약속이 무산되어 失心한 채 앉아 있는 남편을 위해 술을 데워서 권하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정다워 보인다. 그리고 약속한 친구대신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정경에서 따뜻함과 소박함이 묻어난다. 용재에게 화답을 청한 어느 고시에서는 “아내가 아침에 내게 말하길, ‘작은 항아리에 새 술이 막 익었네요.’ 한다네.”⁴⁶⁾라는 구절로써 부부 간의 살뜰한 정취를 실감나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아내가 자신보다 1년 앞서 죽었기에 훗날 그는 유모가 가져온, 평소 그토록 즐기던 술을 대하고도 마실 수가 없었다.

平生懷抱抵須酒
今日還無婦可謀

평생의 회포를 다만 술에 의지해 풀었는데
오늘은 도리어 술 가져올 아내가 없구나.

44) 十月四日，與擇之約携酒叩仁老，擇之忽以病報不果，獨坐有感於心 …… 妻輒呼小鐵鑊煮酒，且酌且勸，飲之不計巡，醺然醉，夜已再鼓矣(『挹翠軒遺稿』卷三，「十月四日，與擇之約携酒叩仁老」).

45) 게를 안주로 해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매우 즐거운 술자리를 뜻한다. 쫄나라 畢卓이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고 왼손으로는 게를 쥐고 酒池에 배 띄워 놀면 일생이 만족스럽겠다.”고 한 데서 유래한다. 『晉書』卷四十九「畢卓傳」(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읍취현유고』, 153쪽 각주 참조).

46) 山妻朝報我，小甕潑新醕(『挹翠軒遺稿』卷一，「霖雨十日，門無來客，悄悄有感於懷，取舊雨來今雨不來爲韻，投擇之乞和示」第七首).

偶對一盃那忍倒 우연히 술잔을 대하니 어이 차마 마시라
 莫言此物爲忘憂⁴⁷⁾ 이 물건이 근심 잊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

평소 愁心에 쌓여 있을 때면 아내가 가져다 준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던 그였으나 아내가 없는 지금은 그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술이 아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曾皙이 羊棗를 좋아 했는데, 그가 죽은 후 아들 曾子가 羊棗를 차마 먹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⁴⁸⁾ 술도 忘憂物이 되지 못한다는 그의 토로에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은 듯한 절망감마저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읍취현에게 있어 술은 狂藥인 줄 알면서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마실 수밖에 없는 妙藥이었다. 그가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시에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와 현실 간에는 실로 큰 격차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좁힐 수 없는 이 간극에 힘들어하던 그는 음주를 통해 그것을 메우고자 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술은 가슴 속 불평을 잠재우고 위로를 안겨주는 知己였으며, 때로는 흥을 일으켜 현실을 잊게 해주는 忘憂物이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체념과 염세에 젖어 있던 그를 달관의 세계로 이끌어 주던 존재가 술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이후에는 이것이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읍취현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酒鄉이었지만 말년에는 이것마저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다.

47) 『挹翠軒遺稿』卷二, 「今日竟夕獨臥, 姆憐之, 覓酒以饋, 對之不勝悲感, 輒書一絕以洩懷. 想擇之知我此時之情, 故書以相示」.

48) 『孟子』『盡心』下.

4. 詩題의 長形化

읍취헌 시의 두드러진 특색 중 하나는 詩題가 서술식으로 길게 장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제의 장형화는 작품 감상에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를 이루는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작용이 구체적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마치 시인을 앞에 두고 그와 대화하는 중에 시를 읽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는 짧은 제목의 작품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최소한 30字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서술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제의 字數가 30자 이상인 경우만을 논의 대상으로 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조사한 결과 고시는 오언과 칠언, 46題 가운데 10題, 절구는 17題 가운데 6題, 율시는 77題 가운데 18題, 총 140題 가운데 34題가 30자 이상의 시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장형의 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⁴⁹⁾ 첫째, 창작 동기와 배경을 명시해 줌으로써 작품의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作詩 來歷을 시제에 언급함으로써 시가 작가 자신의 인생 여정을 기록한 일기 내지 자서전적 의미를 갖게 한다. 셋째, 서술조의 긴 시제에 용건과 회포를 적어 보냄으로써 書翰의 기능을 겸하게 한다. 이처럼 시제의 장형화가 가져온 몇몇 효과들로 인해 읍취헌의 시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한 생활 문학적 성격을 띤

49) 기존 논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우흠의 『박은 한시의 특색』(『한국어문논집』 제1집, 한사대, 1981)과 김은수의 『읍취헌 박은 시 연구』(『고시가연구』 제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0)를 들 수 있겠다. 여기서 김은수의 경우 차운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이유로 들었다. 차운시를 이해하려면 시가 창작된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제가 길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차운시가 아닌 경우에도 장형의 시제는 많이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차운시를 이유로 든 그의 견해도 사실상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요약 중 첫 번째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타당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들 연구가 시제의 장형화라는 특징적 현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제와 시를 자세하게 대비해서 고찰하지 않고, 시제만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한 표면적 의미만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논의 가운데 작품의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첫 번째 항목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며 주목을 요하는데 필자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 성과를 십분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시제와 시,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 장형화된 시제가 작품의 내용 전달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만약 시인이 길게 서술된 시제 속에 자신의 뜻을 모두 담아내었다면 결국 시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읍취현의 시를 보면, 제목이 장형이라 하더라도 시 텍스트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精緻하게 구현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시제와 시, 두 곳에서의 표현 방식에 각각 일정한 구분을 두고 있었다는 가정을 세워 볼 수 있다. 그러한 구분으로 인해 동일한 시적 제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와 시 사이에는 모종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에 주목해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 고자 한다.

긴 시제를 이용해서 시와 관련된 다양한 컨텍스트(context)에 대해 언급한 후, 시를 완성하는 읍취현의 작시법에는 분명 앞서의 논의들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가 존재하리라 기대하며 실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뜻에 맞지 않은 세상사가 많아서 비록 가을 국화가 있더라도 나의 회포를 풀 수가 없다. 꽃을 대하고 있어도 단지 절로 슬픔만 더할 뿐이고, 술 또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꽃을 보내드리오니, 병든 눈이 오히려 한 번 밝아질 듯도 하오만 만약 그대가 또한 술잔을 엮었다면(술을 끊었다면) 이 꽃을 어찌겠

는가. 재앙이라 할 따름이요. 은은 용재 선생께 아뢰오.⁵⁰⁾

對花空自歎	꽃을 대하고 공연히 스스로 탄식하노니.
有酒爲誰煎	술이 있어도 누구를 위해 데울꼬.
寄與詩人宅	시인의 집에 부치노니
應同驛使傳	응당 역사가 전하는 것과 같으리.
愁懷謾今日	금일은 부질없이 회포 시름겹고
細酌記前年	작년을 떠올리며 훌쩍훌쩍 술 마시네.
獨閉寒齋臥	홀로 문 닫고 쓸렁한 방에 누우니
生涯轉索然	이내 생애 더욱 쓸쓸하여라.

이 시는 오언율시의 형식을 취하면서 시체에 총 56자를 할애했다. 우선 시체에 드러난 시인의 어조를 보면 情의 지나친 표출 없이 대체로 담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불만스런 처지와 심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체를 읽었을 때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도 시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시체는 국화를 소재로 하여 여의치 못한 세상사와 자신의 울울한 심사를 얘기하고, 또 친구인 용재의 눈병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었기에 특별히 독자의 심금을 울릴 만한 계제가 없다.

시인의 이러한 어조는 시 작품에 오면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먼저 시의 수련에서는 ‘空’·‘誰’, 두 시어의 쓰임이 눈에 띈다. ‘空’에는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으며, ‘誰’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 이상으로 시인의 자탄에 깊이를 더한다. 그리고 함련에서는 용재에게 국화를 보낸 사실을 읊었는데, 여기서는 詩的 用事⁵¹⁾를 통해

50) 僕世故多不快意，雖有秋花，未能解余懷。對之祇益自悲，酒亦不可飲也。故此奉投，病眼尙一明，如君之亦覆觴，何此花。可謂厄耳。聞白容齋先生(『挹翠軒遺稿』卷三)。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感慨를 담아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근심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고통을 술로 달래며 옛 기억을 추억하는 시인의 모습이 처량하게 그려졌다. 이어 마지막 미련에서는 ‘獨’·‘閉’, 두 시어가 시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동시에 ‘寒’·‘素然’ 등의 시어와 호응하여 무거운 분위기로 시가 마무리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제에 비해 시에서는 시인의 어조와 표현이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다. 둘에서 보여지는 내용의 기본적 골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지만 시에서는 시적으로 형상화된 표현과 정서적·감각적 시어를 통해 독자에게 감성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런 까닭에 독자는 나름대로 작시 상황에 대해 상상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시인의 토로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장형의 시제에서 시작해 본격적인 시 작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중 구조가 독자로 하여금 시적 내용에 더욱 몰입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에 제시된 시 역시 읍취현의 일상적 모습과 당시의 회포를 담은 작품으로 100자 이상 되는 장형의 시제를 가졌다.

나는 한두 해 사이에 머리에 흰 머리털이 생기기 시작했다. 흰 머리가 자주 보이자 아내가 족집게로 뽑아서 내게 보여주기에 장난삼아 웃고 말았는데 우연일 뿐이었다. 그러나 우환을 겪은 뒤로는 종종 흰 머리가 보이고, 눈이 흐린 증세가 예전보다 더 심하였다. 아! 세상에 살날이 그 얼마나 오래라고 사화는 또 술을 절제하라고 훈계하는가. 비바람이 사람을 엄습하는데 홀로 앉아 길게 탄식한 나

51) 驛使 便에 꽃을 부치는 것은 벚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南朝 宋의 陸凱가 봄을 상징하는 매화가지를 꺾어 북쪽에 있는 친구 范曄에게 보내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읍취현이 이典故를 취한 것이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매화를 꺾다 역사를 만났기에 농두 사는 그대에게 부치오. 강남에는 아무것도 없어 애오라지 한 나뭇가지의 봄을 보낸다오.”(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寄一枝春)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읍취현유고』, 132~133쪽의 각주와 이해원의 『황하에 흐르는 명시』, 476~479쪽 참조)

머지 정이 발하여 시가 되었다. 읊조리기를 마치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감회가 있기에 시를 써서 그대에게 보이노니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5월 28일 박은은 택지 선생에게 재배하노라.⁵²⁾

憂患祗應關己事
心懷尚欲爲誰寬
鬢毛颯颯生秋氣
風雨淒淒作曉寒
萬事可能辭爛醉
十年端悔做微官
遽然罷却湖山夢
依舊塵埃自滿冠

우환은 다만 자기에게 달린 일이니
이 마음 오히려 누구를 위해 달래랴.
귀밑머리에선 소슬하게 가을 기운 일고
비바람은 쓸쓸하게 새벽 한기 만드누나.
만사에 실컷 취함 사양할 수 있겠는가.
십 년 동안 하찮은 벼슬 지낸 것 후회하노라.
갑작스레 호산에서 노니는 꿈 깨고 나니
여전히 티끌만 관에 가득하더라.

이 작품을 보더라도 시제와 시 사이에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제에서는 백발과 시력의 약화에 대한 내용을 매개로 자신의 심회를 서술해내고 있다. 당시 읊취헌의 나이가 20대 중반임을 감안한다면 흰머리가 생기고 눈이 흐려지는 증상이 심해졌음은 그가 받은 심적 고통이 무척 컸음을 추측케 한다. 또한 ‘살날이 얼마인가’(在世者能幾何久), ‘얼마 남지 않은 생애’(殘生)와 같은 표현들에서 그가 자신의 단명을 예견했거나 아니면 생의 의욕을 상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제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도 독자는 시인의 감정을 읽어내거나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처럼 시제에도 시인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지만 크게 걱정적이거나 짙은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에 독자의 감정적 공감을 야기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52) 僕一二年來，頭有白毛始生之髮。屢見素莖，室婦嘗鑷以視我，付之戲笑，蓋偶然耳。自經憂患，種種見之，眼昏復甚於曩日。嗟乎。在世者能幾何久，而士華且箴以節歛乎。風雨襲人，獨坐長歎之餘，情發爲詩。吟罷有感於殘生，故書以示君，君其謂何。五月廿有八日，間再拜擇之先生(『搢翠軒遺稿』卷三)。

있는 시가 이어서 제시되는 것이다.

시제에서의 설명적·서술적 어조는 시 작품에 오면 독자에게 감정적 여운을 주는 시어들로 대체된다. 함련에 사용된 ‘颯颯’·‘淒淒’와 같은 시어는 수련에 나타난 시인의 근심을 독자에게 體感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제에서 친구 남곤이 읍취현에게 술을 줄일 것을 권고한 대목이 시의 함련에 오면 이런저런 온갖 일 생각하노라면 흠뻑 취하고 말겠다는 식의 興致 가득한 풍류스런 대목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보니 속세의 티끌만 관에 가득하다는 미련의 내용에는 청운의 꿈을 안고 관직에 몸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강한 부정의 정서가 어려 있으며 이는 독자에게 강렬한 여운을 안겨 준다.

이처럼 읍취현의 작시 방식은 먼저 장형의 시제 속에 시적 컨텍스트(context)를 소개해서 주위를 환기시킨 후, 그 다음 시라는 문학 갈래가 지닌 여러 특성을 활용해서 감성적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또 이를 통해 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칠언절구도 앞서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79자의 장형 시제를 가진 작품이다. 남곤과 관련된 일화를 내용으로 한 이 시에서 읍취현의 쓸쓸한 심경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사회가 전에 취현에 왕립하여 굴평과 가생의 전을 읽고, 가도의 그림과 인수의 시를 보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단 한 구절의 시도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 비록 이조에서 문목의 일로 심란하겠지만 맑은 아침, 고요한 밤에야 도리어 흥이 없겠는가. 이는 너무 속된 것 같다. 아침에 맑은 이야기를 나누고 비를 맞으며 돌아와 우연히 작은 시 한 수를 지었기에 보내드린다. 다만 남이 나에게 먼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번번이 주제넘게 보내니 또한 지나친 일이 아니겠는가.⁵³⁾

53) 士華前枉翠軒，讀屈平賈生傳，觀可度之畫，仁叟之詩，數日絕無一句來起我。雖云吏曹文墨亂其心，清晨寂夜，顧無興乎。是似太俗也。朝奉清話，乘雨而還，偶得小詩奉呈。但人不先我，我輒冒之，無亦過乎(『挹翠軒遺稿』卷二)。

此心無處與深論
 知我濠梁獨有君
 談罷歸來乘小雨
 翠軒牢落一爐熏

이 마음 깊이 의논할 데 없으니
 내 호량 아는 이는 오직 그대뿐이지.
 얘기 마치고 가랑비 속에 돌아오니
 취헌은 쓸쓸하여 향로 하나뿐이었소.

이 시의 시제는 상당히 서사적이어서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시 상황과 시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취헌을 방문한 남곤이 굴평과 가생의 傳을 읽고, 조선초의 화가인 안견의 그림과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시를 보고 갔다.

이날의 만남에 대한 시를 보내줄 만도 하건만 며칠이 지나도록 시 한 구 보내지 않자 섭섭함을 느낀 읍취헌이 위의 절구를 짓게 된 것이다. 조정의 일로 바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시 한 수 보내지 않는 것은 너무 속되지 않느냐는 표현에서 읍취헌의 서운함이 직접적으로 묻어난다. 시제의 말미에는 늘 자신이 먼저 시를 보내는 데 대한 멋쩍음과 불만의 어조가 스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풍부한 詩心에 대한 모종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이처럼 시제 부분에서는 일의 정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별다른 꾸밈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칠언절구 형식의 시에 오면 확연한 변화를 보인다. 여기서의 변화란 다름 아닌 함축적인 시어 사용과 여운을 주는 시구 구성을 뜻한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읍취헌이 자신의 심회를 털어놓을 이가 오직 남곤뿐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濠梁’은濠江에 놓인 다리를 말한다. 莊子와 惠子는 이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소재로 한바탕 설전을 벌였는데,⁵⁴⁾ 이 시에서 ‘濠梁’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벗을 의미한다. 이렇게 用事된 시어를 통해 읍취헌의 심중에 자리한 남곤의 존재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

54) 『莊子』 『秋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믿었던 남곤이 시 한 구 보내주지 않자 타고난 시인 읍취현의 마음은 쓸쓸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의 후반부에서 가랑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나 향로만 덩그렇게 놓여 있는 취현의 광경은 상당한 미적 정취를 담고 있기에 독자는 여기서 시인의 심정을 바로 대면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시제는 시의 감상을 돕는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제의 작용에 힘입어 시에 나타난 시인의 문학적 감수성과 시흥이 독자에게 강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詩體別 選好 傾向

『읍취현유고』의 특징 중 하나는 절구에 비해 고시와 율시의 비중이 높고 연작시가 많다는 점이다. 절구의 경우 오언이 5수, 칠언이 33수인데 비해, 고시의 경우 오언은 50수, 칠언은 26수이며, 율시의 경우 오언은 54수, 칠언은 60수이다. 물론 읍취현이 화를 당한 이후 그의 시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용재 이행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 의해 전해졌기 때문에 현재 남은 시편들만으로 그가 어떤 시체를 선호했는지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집에서 보여지는 시체의 선호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므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고체시 즉 고시는 근체시보다 앞서 형성된 시체로서 仄仄, 字數, 句數, 對杖, 押韻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아 그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근체시인 절구와 율시는 그 體式이 엄정하여 표현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게다가 절구는 율시에 비해 단형이므로 상당한 함축과 정제, 인

위적 손질이나 사과의 여과 과정이 필요한 절제된 형식임에 분명했다.

기존 논의 중에도 읍취현의 고시 및 읍시 선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추측한 연구가 두 편 정도 있었는데, 그 결론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⁵⁵⁾ 첫째, 읍취현은 천성이 자유분방했기에 고정된 형식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說盡停筆의 자세로 변화무쌍한 고시형이나 정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읍시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신의 풍부한 詩想을 깊은 사고를 통해 짙진하게 표현해 내려고 애썼다는 말이다. 둘째, 주위 환경에 대한 불만과 그것에 대한 저항 정신이 시형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전통적인 정형시의 시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결론 중에서 두 번째 것은 그 사실성 여부를 증명해 내기가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첫 번째 결론에 주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기존 논의의 맹점은 고시, 절구, 읍시 각각의 작품 수에 대한 통계에 치중해서 결론을 내렸을 뿐 각 시체별로 실제 작품을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고시, 절구, 읍시라는 작품 형식과 작품 수에 주목했을 뿐 그 각각의 시형에 따른 시적 특성을 살피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시, 절구, 읍시에 속하는 작품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읍취현의 作詩 성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만 그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겠다.

먼저 고시 76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고시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첫째, 기행시 내지 유람시로 명명할 만한 성격의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주로 여정에 대한 기록과 흥취를 내용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체를 통

55) 홍우흠의 「박은 한시의 특색」(『한국어문논집』 제1집, 한사대, 1981)과 김은수의 「읍취현 박은 시 연구」(『고시가연구』 제7집, 2000)가 대표적이다.

해서 파악하더라도 46題 가운데 24題 가량이 여행, 유람, 뱃놀이, 사냥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이 별로 없다. 물론 작품 중간에 고뇌와 한탄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율시에 비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읍취헌의 고시를 살펴보면 첫째, 그가 완성도 높은 작품을 통해 문학 적 성취를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회포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金藏窟로 가는 도중에 택지의 시에 차운하다』⁵⁶⁾ 『靈通寺에서 흥취를 기록하다』⁵⁷⁾ 등의 작품에서는 기행의 여정에 대한 서술과 경관에 대한 묘사 등을 매개로 자신의 심회를 풀어내는 데 비중을 두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이외에도 使行길에 오른 친구를 전송한 송별시가 6수 있는데, 5수의 연작시 형태를 취하거나 아예 60구의 장시형을 택한 데서 실로 할 말을 다해야 붓을 놓는다는 읍취헌의 작시 방식을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고시에서는 30자 이상 되는 장형의 詩題가 10題라는 점이다. 고시의 작품 수를 고려할 때 이는 율시에 비해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장형이라 해도 율시에 비해 제목의 길이가 대체로 짧다. 이는 구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고시의 특성상 작품에서 자신의 심회를 충분히 읊을 수 있기에 제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내용상 어떤 일을 계기로 깊은 심회가 있거나 벗과의 통음 후 큰 감회가 일어날 때 시제가 장형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에 눈보라가 매우 거세어 방문을 닫고 홀로 누워 있노라니 산음의 흥취를 억제할 수 없었다…』⁵⁸⁾나 『어제 만리외에서 술을 마시며 고금의 일을 맘껏 담론하고 취한 몸을 부축 받아 집에 돌아왔다…』⁵⁹⁾와 같은 작품들을 일례로 들 수 있겠다.

56) 『挹翠軒遺稿』 卷一, 『金藏窟途中, 用擇之韻』.

57) 『挹翠軒遺稿』 卷一, 『靈通寺記興』.

58) 『挹翠軒遺稿』 卷一, 『二十五日, 風雪甚惡, 閉戶獨臥, 山陰之興, 不可禦也…』.

59) 『挹翠軒遺稿』 卷一, 『昨飲萬里瀨, 劇談古今事, 扶醉而還 …』.

세 번째 특징은 연작시가 38수라는 점이다. 상대에게 화답한 작품의 경우 「… 고체시 7수를 읊고 등잔불을 가져오게 하여 종이에 써서 이튿날 용재에게 보냄으로써 전날 시 7편을 보내 준 데 답한다」⁶⁰⁾처럼 먼저 받은 시의 편수에 준해서 연작의 형식을 취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장맛비가 열흘 동안 내려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에 … 택지에게 보내 주어 화운해 주길 청하였다」⁶¹⁾는 식으로 화답을 청하며 연작시를 보낸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시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내용상의 전환이 있을 때도 연작시 형태를 취했다. 이 모든 경우 연작시 각 편의 길이 즉 행수가 통일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들쭉날쭉하기도 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양할 경우 표현상의 편리를 위해 연작시 형태를 택했을 뿐 굳이 시구의 길이를 통일하는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읍취현유고』 所載 고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미 고시의 작품 수에서도 드러났듯이 읍취현은 散文形을 선호한 인물이었다. 고시는 산문형을 선호했던 그가 운문 양식 가운데서 택한 중도적 문학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경관을 묘사해내고 꾸며내는 데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읍취현에게 있어 이들 시적 소재는 모두 자신의 심회와 회포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매개물이었다. 그는 선비의 필수 교양인 詩作 활동을 통해 벗들과 교류했고, 또 자신의 심회를 표출했던 것이다.

그럼 비중면에서 제일 적은 절구 38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친구들에 의해 전해오는 詩稿에 의지했기에 절구가 읍취현이 선호하지 않은 시형이라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남은 작품 가운데서도 양적인 면에서 너무나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언절구의 경우 작품이 5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의를 생략하도록 하겠다.

60) 『挹翠軒遺稿』 卷一, 「… 吟成古體詩七首, 呼燈書之, 明日投容齋, 以答前日七篇之惠」.

61) 『挹翠軒遺稿』 卷一, 「霖雨十日, 門無來客 … 投擇之乞和示」.

칠언절구는 33수 가운데 연작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2수 연작이 3제, 4수 연작이 1제, 6수 연작이 1제, 8수 연작이 1제, 도합 24수가 연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시체에 있어서도 15제 중 5제가 30자 이상의 장형이다. 일례로 『연일 밤에 좋은 달을 놓쳤으니 아쉽고 아쉽구려. 가벼운 구름이 있고 비는 오지 않으며, 맑은 바람만 숲에 가득 부니, 함께 밤을 보내며 정담을 나눌 만하오. 그러나 그대는 이곳에 오지 못하고 나는 비록 가고자 해도 타고 갈 말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안장을 얹은 말을 보내 주면 내가 가겠소. 은이 택지게 사되오』⁶²⁾라는 작품의 경우 시제가 무려 44자인데, 이것은 짝막한 칠언절구 한 수로 나타내기에는 시인의 회포가 컸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오언절구에서도 2제 가운데 1제가 71자의 장형 시제다.

앞서 고사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읍취헌은 확실히 산문형을 선호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있어 절구란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양식이었다. 그랬기에 절구 형식을 취했을 경우 연작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회포를 가급적 길게 풀어내거나 장형의 시제를 택함으로써 작품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 했다. 이처럼 읍취헌의 絶句詩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면에 대한 고찰은 내용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율시 114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는 각각 54수, 60수로서 그 편수가 비슷하다. 율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총 77제의 작품 가운데 18제가 30자 이상의 장형 시제를 갖고 있으며, 연작시가 56수라는 점이다. 특히 율시에서 27~29자로 된 시제까지 장형에 포함시킨다면 장형 시제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것은 율시가 절구에 비해 정확히 두 배 더 길지만 율시도 읍취헌의 심중에 담아둔 내용을 풀어내기에는 짧은 양식이었음을 뜻한다.

62) 『挹翠軒遺稿』 卷二, 「連夜失良月, 可恨可恨. 輕雲不雨, 清吹滿林, 可對臥一話. 君不能來, 我雖欲進, 無騎, 奈何. 送鞍馬則可進. 聞白擇之」.

먼저 장형의 시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제가 단순히 제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길어졌기에 때로는 시제가 시를 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시인이 마치 시제를 위해서 시를 쓴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든다. 특히, 율시에서 50자를 전후해서부터 100자를 초과하는 超長形의 시제가 8수나 된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읍취헌이 산문형을 선호한 인물임을 실감하게 한다.

장형의 시제를 읽다 보면 시인을 앞에 둔 채 그와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훗날 이 시를 읽어볼 누군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적극적 배려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처럼 긴 시제에는 시인의 자기 표현 욕구와 타인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작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율시에서 전체 작품 가운데 절반 가까이 연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읍취헌이 왜 율시를 쓰려고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의 연작시는 몇 편의 그림에 대한 題畫나 벗의 시에 대한 화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편수를 맞춘 것도 있지만, 계해년 2월에 남쪽으로 돌아가 외삼촌을 뵈고 10여 일 머무르는 동안 산과 바다의 경치 좋은 곳을 만나면 통음하면서 지었다는⁶³⁾ 『수영 뒤의 정자』⁶⁴⁾처럼 다양한 풍광을 접하는 와중에 흥이 나서 연작시 형태를 취한 작품도 많다.

율시는 고시보다 서술성이 약한 관계로 연작시에서도 그 정서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시에서는 마치 이야기를 하듯 부가적으로 첨가된 내용들이 많으나 율시에서는 간결하게 정선된 내용만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작시 각 편의 句數도 고시에서와는 달리 통일되어 있기에 자신의

63) 癸亥二月, 余南歸謁舅氏, 廿有二日, 到保寧營, 淹留十餘日, 每遇山海勝處, 輒痛飲爲樂.

64) 『搥翠軒遺稿』卷三, 「營後亭子」.

정서를 정제된 형식 속에 담아내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또한 율시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자신의 불우와 세상과의 부조화에 대한 토로가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 「내 평생의 일을 이미 알 만하니, 더욱 세상에 미련이 없구려…」,⁶⁵⁾ 「밤에 전혀 잠이 오지 않기에 스스로 평생의 일을 생각하니 온갖 상념만 또렷이 떠오르는구려…」,⁶⁶⁾ 「밤에 술이 취해 비바람 치는 중에 홀로 누웠노라니 생각이 더욱 무료하여 외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가슴 속을 오갔소」⁶⁷⁾ 등 그 제목만 보더라도 시인의 우울한 심사가 전달되는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음주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病苦에 대한 애탄, 不運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허무를 깨닫는 달관의 자세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조선 후기 申緯(1769~1845)가 읍취현을 평한 論詩絕句가 있는데, 여기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한 시인 「福靈寺」의 미련을 보면 “만사는 한 번 웃음거리도 못되나니, 청산도 오랜 세월이 먼지만 자옥하구나.”⁶⁸⁾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시구를 통해 볼 때 읍취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허무한 세계에 집착하여 슬픔과 분노의 정을 가지기 보다는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가기를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⁶⁹⁾ 이처럼 율시에서는 개인적 회고 가운데서도 우울한 정조를 담아낸 작품이 많다.

이상 읍취현의 율시에서도 그가 산문적 성향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표현상의 모호함보다는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수의 시를 쓰더라도 분명하고 남김없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었다.

65) 『挹翠軒遺稿』 卷三, 「…百年事已可知也, 益無一懷…」.

66) 『挹翠軒遺稿』 卷三, 「夜來無一寐, 自念百年事, 懷抱耿耿 …」.

67) 『挹翠軒遺稿』 卷三, 「夜來被酒, 獨臥風雨中, 思轉無聊, 補外之計尤耿耿往來於懷…」.

68) 萬事不堪供一笑, 靑山閱世只浮埃(『挹翠軒遺稿』, 「卷三」, 「福靈寺」).

69) 신항림, 「비극적 세계에 저항하는 淸眞한 정신」, 『한국문학연구』 제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49쪽.

6. 結論

본고에서는 읍취헌 시의 큰 특징 가운데 詳論의 여지가 있는 네 가지 항목을 통해 그의 시를 살펴보았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용재와의 교유시, 취흥과 통음의 음주시, 시제의 장형화, 시체별 선호 경향에 대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교유시 가운데서도 작품 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용재 이행과의 교유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읍취헌이 용재에게 보낸 교유시에는 자신의 약한 모습과 고독에 대한 토로, 세상사에 대한 투정과 탄식, 흥취와 호기 등 여러 감정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적이고 진솔한 자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시의 바탕에 용재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읍취헌의 시에 빈번히 등장하는 음주시에 대해서 고찰했다. 벗과의 痛飲이나 飲酒 후의 醉興을 소재로 한 이들 작품에는 시인의 인생 노정과 심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기에 작가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음주시를 텍스트로 해서 시에 제시된 다양한 음주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읍취헌에게 있어 술이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읍취헌은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 세계와 현실 간의 괴리에 힘들어 했으며, 음주를 통해 이 간극을 줄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술은 가슴 속 불평을 잠재우고 위로를 안겨주는 知己였으며, 때로는 흥을 일으켜 현실을 잊게 해주는 忘憂物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아내와의 사별 이후에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읍취헌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酒鄉마저도 말년에 가서는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시제의 장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논의에서는 시제와 시를 대비하지 않고, 시제를 읽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표면적 의미만을 파악해서 결론을 내린 데 반해 본고에서는 시제와 시,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 장형화된 시제가 작품의 내용 전달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그 결과 장형의 시제를 이용해서 시적 컨텍스트(contex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위를 환기시킨 후, 다시 시라는 갈래가 지닌 문예적 특성을 활용해서 감성적으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이중 구조를 통해 독자가 시적 내용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읍취현의 시가 절구에 비해 고시와 율시의 비중이 높고 연작시가 많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논의 가운데도 읍취현의 고시, 율시 선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추측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논의에서는 고시와 율시의 작품 수에 치중해서 결론을 내렸을 뿐 각 시체별로 작품을 분석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시, 절구, 율시에 속하는 작품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읍취현의 作詩 성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읍취현이 산문적 성향의 인물이며, 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연작시를 쓰더라도 자신의 뜻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朴 聞, 『挹翠軒遺稿』(『한국문집총간』 21,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8).
『국역 읍취헌유고』(이상하 譯, 민족문화추진회, 2006).
申光漢, 『企齋集』.
『詩經』·『論語』·『孟子』·『莊子』·『古文眞寶』(前集).
- 김은수, 「읍취헌 박은 시 연구」, 『고시가연구』 제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0.
신향림, 「비극적 세계에 저항하는 淸眞한 정신—읍취헌 박은의 시세계」, 『한국문학연구』 제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5.
안병학, 「이행의 시세계에 있어서의 현실공정과 풍류」, 『태동고전연구』 제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7.
이중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이해원, 『황하에 흐르는 명시』, 현학사, 2004.
홍순석, 『朴聞의 生涯와 詩』, 일지사, 1986.
_____, 『박은 시문학 연구—자료편』, 한국문화사, 2004.
_____, 「박은 시의 수사기교 연구(1)—拗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4집, 한국한문학회, 2004.
홍우흠, 「박은 한시의 특색」, 『한국어문논집』 제1집, 한사대, 1981.

Abstract

A Study on Chinese Poetry of Eupchuiheon Park-Eun

Jeong, Si-Youl

This study is to research into four items that leave detailed discussions while having several characteristics of Eupchuiheon's poem. Those four items include friendship poems with Yongjae, the elongation of the title of a poem, drinking poems of hilarity and heavy drinking, and the tendency to prefer by poetic style.

In Chapter 2, the study looked into friendship poems with Yongjae Lee Haeng which marked the absolutely higher portion in the number of works from among the friendship poems. The friendship poems that were sent to Yongjae by Eupchuiheon expressed various emotions without reserve, and such humane and frank self-expressions were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humane trust in Yongjae on the basis of those poems.

In Chapter 3, the study reviewed poems of drinking alcohol that frequently appeared in Eupchuiheon's poems. To Eupchuiheon, liquor was an appreciative friend that pacified the complaints of the mind and comforted him, and sometimes it was a thing to take him to oblivion that made him forget about reality by making him feel excited. Also, he tri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ideal world that he had dreamed of and reality through drinking. However, this also became a painful object that reminded him of the memory of his wife after her death. Through this, the study confirmed that Eupchuiheon was unable to preserve even a place of drinking which was his sole shelter, intact in the twilight of his life.

In Chapter 4, the study took a look into the elongation of the title of a poem, which affects the appreciation of the work most. As a result of searching how the elongated title of a poem functions in delivering the contents of the poem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title and

the poem, in detail, the study confirmed that a reader is able to concentrate on and absorb even more of the poetic contents due to the title of a poem in an elongated form.

In Chapter 5, the study looked into the fact that Eupchuiheon's poems have more old poems and Chinese style poems relative to quatrains, and have many more sequential poems.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d on which characteristic the works of old poems, quatrains, and Chinese verse style poems show, respectively. From this, the study confirmed that Eupchuiheon was of prose character, and tried to clearly express his desires wholly rather than to state them obscurely through poetic expressions.

Key Word

Eupchuiheon, Park-Eun, friendship, Yongjae, Lee Haeng, drinking alcohol, title of a poem, a verse style, Yonsangun, Gapjasahwa

- 논문투고일 : 2009.5.30. 심사시작일 : 2009.6.2. 심사완료일 : 2009.6.12.